

**매체 소개** (<http://www.photoart.co.kr>)

월간 「사진예술」은 1989년 5월호를 창간호로 하여 매달 발행하고 있으며, 사진계의 원로이신 이명동 선생이 창간하셨습니다. 1992년에는 제1회 공보처 선정 우수잡지로 선정, 1997년에는 한국잡지언론상 편집상을 수상했고, 2016, 2017, 2018, 2019, 2020년 5년 연속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콘텐츠잡지로 선정되는 등 권위 있는 사진잡지로서 위상을 다져왔습니다.

「사진예술」은 고전부터 현대까지, 다큐멘터리부터 파인아트, 패션, 연출 사진 등 국내외 사진 예술 전반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전문 필진의 기고, 기획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 동시대 사진예술을 바라봅니다. 사진은 더 이상 기록으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동시대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적이며, 광범위한 시각예술로, 사진에 대한 매체 비평은 동시대의 사회, 문화, 예술의 지형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읽기'입니다. 「사진예술」은 이런 사진 예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비평을 통해 국내 사진문화 발달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제공 지면 소개**

「사진예술」은 2018년 연간기획은 사진 분야에 조희가 깊은 전시기획자의 관점에서 본 장르, 이즘(ism), 주제, 소재 등을 바탕으로 공통점이 있는 작가의 작품을 선정해 소개하는 '지상 기획전'을 연재했습니다. 2020년 연간기획은 '한국사진의 역사와 논쟁'으로 중앙대학교 사진전공 이경률 교수가 한국사진의 역사에 나타난 주요 쟁점들을 연대순으로 연재합니다. 또한 계명대학교 사진미디어과 정훈 교수가 '20세기 사진의 역사'를 연재합니다. 이는 사진의 매체적 역량과 가능성을 심화시킨 전위적인 사진가들의 시대였던 20세기의 사진적 흐름을 재맥락화하기 위함입니다.

사진예술은 외부 필진의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기반으로 한 심도 깊은 전시 비평글과, 하나의 주제를 통해 고전부터 현대까지 사진예술의 흐름을 짚고,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신선한 아이디어의 기획 및 비평을 통해 동시대 사진예술의 지형을 읽어내려 합니다.

**매체 소개** ([www.sctoday.co.kr](http://www.sctoday.co.kr))

본지 서울문화투데이(사과나무미디어그룹)는 지난 2008년 창간해 문화예술을 전문으로하는 문화신문으로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격주 종이신문-대판 20면)을 동시에 발행하며 10년 차의 문화예술 전문신문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구글, 다음과 검색 제휴를 맺고 기사의 노출이 용이해 기사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과 다양한 문화행사 및 전시 공연 소개 등 독자들을 문화의 세계로 안내하는 정보를 전달하면서 문화예술계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아끼지 않는 문화전문 매체입니다. 특히 문화예술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미술인들은 물론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을 발굴,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예술세계를 심도있게 소개하고, 미술계의 전문가들의 칼럼을 연재해 독자들이 시각예술 장르에 좀 더 가까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3월과 4월에 미술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한국미술계 발전을 위한 포럼'-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 문제와 4차산업시대 미술의 방향과 전망을 중심으로-을 2차례 개최해 한국 미술계의 발전을 위한 담론을 형성과 미래 가치에대한 논의를 심층적으로 펼쳤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작가들을 재조명하고 미술계 발전을 위한 담론 형성을 위해 꼭 짚어야 할 문제들에 대한 심층 기획기사를 통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술계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공 지면 소개**

시각예술 분야의 회화를 비롯 조각, 사진,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공예, 조명예술 등 전 장르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면의 9면 전시미술 페이지와 10면 17(19) 에 고정으로 기사와 칼럼을 게재하고 있으며, 그 외 여러 지면을 통해 작가 인터뷰와 기획기사, 전시리뷰 등을 매 호 게재하고 있습니다.

**매체 소개** ([www.artinculture.kr](http://www.artinculture.kr))

아트인컬처(Art In Culture, [www.artinculture.kr](http://www.artinculture.kr))는 한국 컨템퍼러리 아트신을 대표하는 미술잡지입니다. '잡지 역시 또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는 비전을 공유하면서 지역, 장르, 담론 등을 가로지르는, 이 시대 최고의 작가와 최고의 필진의 협업이 이루어진 결과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새 시대의 눈, 살아 있는 미술저널"이라는 슬로건 아래 1999년 10월 첫 호 이후 창간 20주년을 넘긴 아트인컬처는 미술 현장을 면면히 기록해 매달 한 권의 책으로 담아, '종이 언론'의 아카이브적 전문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단행해 국내외 미술계에서 다시 한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공 지면 소개**

아트 저널리즘에 특화된 아트인컬처의 에디터십은 기획력과 완성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트인컬처는 매달 국내외 주요 미술인이 필자로 참여해, 전시 평론, 아트신의 생생한 정보와 동향 비평 및 전망, 동시대 미술의 주요 쟁점을 점검하는 기획 연재와 에세이 등을 실고 있습니다.

## 매체 소개 (www.cerazine.co.kr)

매체/플랫폼이 추구하는 방향

월간도예는 국내 도자문화 예술의 인식과 수준을 넓히기 위해 전문성과 대중성을 반영한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 특정 시각예술 장르

도예계의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특집 기사를 비롯해

이달의 주목할만한 작가, 작품활동이 기대되는 젊은 작가, 볼만한 전시와 행사, 짚고 넘어가야 할 분야 내 칼럼, 유용한 정보와 소식들 등 도예계의 골격이 되는 관련 기사들을 실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본지는 도자예술 전문지로서 심도깊은 기사와 인터뷰, 건설적인 논조의 비평과 평론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업계 안팎의 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제도권 체제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나 매체 자체의 여러 제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다루며, 타당성과 설득력을 가진 글 또는 독자의 피드백과 소통이 있는 기획 기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제공 지면 소개

선호 분야	제공 섹션	지면 주제 및 내용	지면
①작가론	이달의 작가	흙을 주된 재료로 작업하는 도예가 소개 작품 주제와 기법, 작품세계의 특징과 작업적 배경 맥락 전달 필자의 관점으로 바라본 예술관/예술가를 탐구한 의도 명시	6~8p
	젊은 작가	젊은 작가 발굴 모색, 참신한 작업, 숨은 실력과 성장가능성 소개	6~8p
②전시비평	전시 토크	도자예술 중심의 기획전 및 취향과 견문의 폭을 넓혀주는 공예전시, 기획 프로젝트 리뷰 및 비평	4~6p
	전시 리뷰	도자 및 도예 IN 공예 분야 내 개인전 및 그룹전 리뷰/비평	4~6p
③주제비평	칼럼 및 오피니언	도예 관련한 주제평론 및 현상 크리틱	6~8p

**매체 소개** (www.monthlyart.com)

본지는 1976년 중앙일보사가 펴낸 《계간미술》을 모태로 하여, 1989년 《월간미술》로 발행주기를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재까지 통권 401호(2018년 6월호 기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국내 최고 권위와 영향력을 가진 미술전문지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 있다. 이에 국내는 물론, 해외 동시대미술의 흐름을 독자에게 소개하고 있다.

=====

본지는 국내외 동시대 미술의 이슈를 폭넓게 다룬다. 매달 심층적 분석이 요구되는 사안을 특집으로 풀어내며, 시의성 있는 뉴스 기사를 실는다. 진행 중인 혹은 진행될 전시에 대한 비평적인 리뷰를 통해 동시대 미술의 흐름과 맥락을 파악한다. 작가 관련 기사는 작가의 작업 세계를 훑어보며 동시대 미술의 맥락 속에 상정한다. 지속적으로 게재해 온 논단은 한국미술의 현장에서 논의될 만한 담론을 찾아 동시대 미술의 새로운 시각을 확보하고 이를 독자와 공유해보고자 한다. 이에 본지는 연재 형식의 논단을 통해 동시대 미술의 맥락을 파악해보려 한다.

**제공 지면 소개**

1. 본지는 이번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동시대 미술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통용되는 레퍼런스들이 토대가 돼야겠으나 필자의 새로운 시각과 담론이 소개되었으면 한다.
2. 동시대 미술을 보는 새로운 비평적 시각 발굴이 이 매칭 지원사업의 목적이라 사료되는 가운데 기사의 성격은 논고 형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물론 이는 향후 필자와 상의하여 변동 가능한 부분이다.
3. 글의 성격은, 필자가 잡은 중심 주제 아래 소주제 형식의 논고가 독자의 흥미 유발과 심층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 부분 또한 필자와 논의하여 해당 주제가 작가론/전시비평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변동될 수 있다. 글 내용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함께 게재해 보충자료로서 독자의 내용 파악에 도움을 제공하려 한다.
4. 비평가가 제안한 주제와 매체가 희망하는 지면의 방향이 부합하려면 상호간의 긴밀한 논의와 주제, 내용의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에 본지는 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여 최선의 지면을 만들 것이다.

**매체 소개** (www.okulo.kr)

2016년 3월 2일 '오디오비주얼 리서치, 지식과 감각 사이에서'를 주제로 첫 호를 낸 이후 현재까지 총 6호를 발간한 <오쿨로>는, 동시대 예술계의 가장 주요한 매체 가운데 하나인 영상에 대한 전문 비평지이다. 극장과 미술관에서 소개되는 영상작품은 물론이고 여러 플랫폼을 가로지르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영상 형식들을 포괄하는 국내외 필자들의 이론적이고 비평적인 에세이와 인터뷰를 꾸준히 소개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영상비평에 있어서 기성 평론가만이 아닌 신진 평론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내는 일에 역점을 두고 이들에게 꾸준히 지면을 제공해 왔으며(창간호의 경우 전원 신진들로 필진을 구성), 이들 가운데 다수가 현재 영상비평 및 기획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제공 지면 소개**

2016년 3월 창간호 발행을 시작으로 <오쿨로>는 현대예술의 동시대 담론을 국내 외 작품들을 통해 소개해 왔다. 소논문 형식의 딱딱한 비평문에 머무르지 않고 인터뷰나 픽션, 서간문, 이미지 에세이 등 다양한 형식의 원고를 통해 독자와의 만남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동시에 <오쿨로>는 오프라인 매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외 전시나 영화 상영회, 작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한다. 특히 한국 예술 비평계에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이 유입될 수 있도록 신진 비평가 세대를 양성하고 이들에게 꾸준히 지면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비평 세대를 위한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

**매체 소개** ([cafe.daum.net/art-preview](http://cafe.daum.net/art-preview))

월간 전시가이드는 2006년 5월에 창간하여 현재 168호를 발행하였으며, 전국 미술관에서 매월 열리는 전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인 미리보는 전시와 더불어, 평론 및 기획기사, 전국 갤러리 색인, 전국 갤러리의 지역별 전시일정, 미술계 뉴스 및 공모전 소식, 갤러리 소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미술관련 언론사에서는 전시기사 소개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매월 전국 회원갤러리 및 인사동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제공 지면 소개**

월간 전시가이드는 전시미리보기 및 기획기사, 전시평론, 작가 및 작품론 등을 주요내용으로 구성합니다. 매월 전시에 앞서 기사화된 잡지를 발행함으로써 전시를 주최하는 갤러리나 작가에게 전시회를 미리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미술전시 전문지입니다.

**매체 소개** (www.artinpost.co.kr)

월간 「퍼블릭아트」는 2006년 10월 창간한 문화예술전문지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온 컨템포러리 매거진으로써 예술성, 전문성, 공공성, 대중성을 함유해 미적 가치와 그 실현을 위한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만든다는 취지로 발간된다.

난해한 텍스트 위주에서 탈피해 필자의 다양화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공유 폭을 확대하고, 타 매체와의 변별성 유지를 위해 콘텐츠, 비주얼 아이템 차별화를 지향해오고 있다. 문화예술의 대중화 실현을 위해 분야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와 정보를 독자들과 교감하고, 시각예술 콘텐츠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통권 164호(2020년 5월 기준)를 발간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09 '우수 잡지', 2014, 2017, 2018 '한류번역지원 잡지', 2010, 2012,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우수콘텐츠 잡지'로 선정된 바 있다.

**제공 지면 소개**

본지는 현대미술을 다각도로 조망하고 신선하고 깊이 있는 시각을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월간「퍼블릭아트」는 미술 현장을 관통하고 시의성을 반영하는 필자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담고자 한다. 원고는 필자의 시각과 편집부의 기획 방향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이는 긴밀한 소통과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ANOTHER VIEW**

색다른 관점에서 예술을 바라보는 꼭지. 대중에게 미술이 조금 더 친숙하고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동시대 미수르이 이슈와 담론을 필자만의 시선으로 담는다.

**\*SPECIAL FEATURE**

현대사회를 관통하는 시의성 있는 주제를 바탕으로 동시대 미술 흐름과 현황을 살펴보는 꼭지. 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현대미술을 무게감있게 분석 및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ARTIST**

국내외 작가들과 그들의 작업을 소개하는 꼭지. 작가의 세계관 및 작업적 배경, 작품의 맥락과 특징 등을 탐구하고 이를 독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달한다.

**\*REVIEW**

전시를 예리하고 비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꼭지. 심층적인 분석과 색다른 시각을 통해 독자들에게 동시대 미술에 대한 흥미와 논의를 불러일으킨다.



**매체 소개** ([www.artguide.kr](http://www.artguide.kr))

온라인 서울아트가이드는 2002년 9월 daljin.com으로 첫 오픈 되었고 2004년에 인명사전을 보강하며 1차 개편 2013년에 단행본 간행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2차 개편을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artguide.kr 로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면으로 발행하는 월간 서울아트가이드의 연재 종료된, 현재 연재 진행 중인 칼럼전체를 독자에게 로그인 없이 무상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외를 비롯한 미술계 관련 다양한 소식과 동정을 수집하여 방문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술계가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되어나가야 할 점에 주목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가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근현대서화에서부터 동시대예술까지 폭넓은 관심을 유지하며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공 지면 소개**

2020 시각예술 비평가-매체 매칭 지원사업 매칭 원고는 달진닷컴의 칼럼 > 연재칼럼 > 스페셜 칼럼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스페셜 칼럼은 미술계 내외의 전문가로부터 그동안 주목해온 미술 현안과 단상에 대하여 게재하는 칼럼입니다. 미술계 현장에서 교류했던 작가에 대한 에세이부터 미술관에서 점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오디오가이드에 대한 주목까지 2003년 8월호부터 2019년 5월호까지 137회에 달하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매체 소개 (www.iseaweed.org)

씨위드 제주라는 지역기반을 바탕으로 글로벌 문화컨텐츠를 수집 및 생산,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의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17년 비영리단체 씨위드를 조직, 문화예술 관련, 전 세계 네트워크를 이용한 잡지의 출간과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 \*씨위드 추구방향

- 국제간 문화 예술인의 접근성을 높여 글로벌 네트워킹 플랫폼 구축
- 세계 각지 및 국내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의 포트폴리오 취합, 한글과 영문 번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제간 상호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
- 국내 아티스트와 해외 아티스트간의 연계를 통해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이를 통한 문화 교류의 장을 제공함.
- 문화예술적 확장성이나 다양성을 적극 소개함으로써 문화를 통한 사회적 기반이나 수익구조에 취약한 아티스트들과 연대해 사회적 기능을 찾아가는 일
- 문화예술을 이끄는 예술인들이 예술작업을 본업으로 삼을 수 있는 수익사업 모델 창출
- 씨위드가 가진 네트워크 플랫폼 안에는 인적자원이 바로 자산이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자료화하고, 사회 속 수익모델과의 접점을 찾아 예술가들의 일거리를 창출하는 것이 사업의 주된 목표가 된다.

#### 제공 지면 소개

- 동시대를 살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전세계의 도시 이곳저곳, 특히나 작업실 임대료가 싼 외딴 곳에 틀어박혀 있는데, 이들이 어떤 보석같은 작품은 어디서 한 눈에 볼 수 있을까? 갤러리와 미술관에선 이미 지치도록 봐온 놀라운 것 없는 유명작가의 전시만 열리고, 신진 작가들을 어디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알 길이 요원하다. 전세계에 흩어진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모아 보기로 했다. 책상서랍 속에 숨겨진 먼지 쌓인 평론글을 고집어 냈고, 작가들의 노트북에 들어있던 작업노트를 세상에 꺼냈다. 그림작가, 글작가, 디자이너, 번역가, 웹프로그래머, 기획자, 평론가, 에디터 등 400여명이 넘는 콘텐츠 창작자들이 참여해 웹진과 오프라인 잡지 형식으로 아티스트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수익사업을 모색하고 실험한다.
- 전세계를 타겟으로 하는 한영신문과 웹진은 콘텐츠 생산지이자 국제적인 매체의 시작점이 되는 제주를 포함, 제주 인접국가와 인접지역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화행사에 대한 이해를 넓혀 향후 타지역/타국가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문화프로젝트의 활성화를 가능케 한다. 질적 양적으로 풍성해지고 있는 시각예술을 포함, 다양한 예술활동의 결과물들을 편집해 소개함으로써, 제주의 문화적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문화행사의 경쟁력을 높인다. 지역에서 할수 있는 방법으로 시작하지만, 다양한 실험과 실행을 통해 폭넓게 확장해 나가려 한다.
- 지역이라는 특성이 오히려 국제적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는 설정으로, 기타 지역, 타국가와 무궁무진하게 연결될 수 있는 진정한 문화예술허브의 역할을 제시한다.
  -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성에 고립되지 않는 방법을 탐구하며, 글로벌 문화컨텐츠 생산지로서 가능성을 모색한다. 주활동지인 제주뿐 아니라 매체가 배포되는 모든 지역에서 국내 작가들의 국제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결과적으로는 지역, 국가간 탈경계에 기여한다.
  - 제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도 세계를 조망한다. 제주를 중심으로 하지만 지역적 특색에 얽매이지 않는 예술적 실험들을 실천한다.

**매체 소개** ([www.artscene.co.kr](http://www.artscene.co.kr))

2009년 이후 공연, 시각예술의 리뷰/비평 원고를 신고 있으며, 동시대의 시의적절한 주제를 다룬 전시, 작품, 독특한 방법론과 매체 형식을 가진 작가의 전시 등을 비평/리뷰로 다루고자 한다. 시각예술 외에 다양한 매체, 장르를 다루려고 하며, 이는 다양한 매체, 장르가 접합되고 충돌함으로써 그 매체, 장르의 확장 가능성이 생겨날 수 있음에 기반을 둔다. 올해는 하나의 작가나 전시를 넘어 동시대를 통시적인 차원으로 확장해서 볼 수 있는 원고를 신고자 한다.

**제공 지면 소개**

'contribution(기고)' 페이지에 연재되며, 전시를 입체적인 측면에서 또 다른 키워드와 연결지어 접근할 수 있는 비평을 신고자 한다. 가령 이를 통해 큐레이팅, 지난 전시와의 비교, 작가의 방법론의 측면에서 전시를 제3의 매개 지점으로 다룰 수 있는 비평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이를 추구하는 비평이 가능할 것이다. 충실한 작품 내재적인 비평을 기초로 하되, 사회나 정치, 예술계와 연관 지은 비평 형태를 생각할 수 있는 비평 원고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예술가나 큐레이터로 소급되는 전시 리뷰/비평이 아닌, 미술사, 미술계, 미술 담론장으로 연계 및 확장될 수 있는 글의 성격을 지향한다.

**매체 소개** ([www.ntoday.co.kr](http://www.ntoday.co.kr))

투데이신문은 '내일을 여는 오늘'이라는 슬로건으로 건전한 저널리즘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구글 등 모든 포털과의 뉴스검색 제휴를 통해 다양한 독자층으로 구성된 독자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네이버 뉴스 스탠드 제휴매체로서의 콘텐츠 신뢰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롱 폼 & 슬로우 저널리즘(long-form & slow journalism)을 구현한 깊이 있고 결이 다른 콘텐츠가 독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투데이신문은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뉴스를 심도 있게 다루는 것과 동시에 문화, 예술에도 큰 비중을 두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신춘문예'를 통해 쇠퇴하는 인문학 부활에 앞장서고 있으며, 아울러 '투데이 아틀리에(Today's Atelier)'를 통해 미술계 소식을 꾸준히 다룸으로써 미술문화 대중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공 지면 소개**

미술문화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투데이신문은 온.오프라인 뉴스로 독자들을 만납니다. 현재 <투데이 아틀리에(Today's Atelier)>라는 코너를 통해 전시, 축제 등 미술계 소식과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들여다보는 직격인터뷰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김종근의 이 작가를 주목한다> 라는 꼭지는 미술평론가가 들려주는 작가론과 작품론을 독자들이 쉬운 언어로 체득하게 됩니다.

미술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각과 분석이 곁들여진 미술비평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아울러 한국 미술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신진작가들'의 내면과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알고 보면 더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전시' 이야기들을 독자들에게 더 많이 제공하고 싶습니다.

## 매체 소개 (www.critic-al.org)

투고 자격과 주제의 제한이 없는 개방형 문화비평 웹진 크리틱-칼(<http://www.critic-al.org>)은 2013년 2월에 창간되었습니다. 크리틱-칼의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gocriticalgo](http://www.facebook.com/gocriticalgo))는 구독자가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5,137명이고 크리틱-칼 트위터 계정([https://twitter.com/Critic\\_Al?lang=ko](https://twitter.com/Critic_Al?lang=ko))의 구독자는 1,579명, 2020년 4월에 개설한 인스타그램 계정([www.instagram.com/webzine\\_critical](http://www.instagram.com/webzine_critical))의 구독자는 524명입니다. 따라서 SNS를 통해서 크리틱-칼을 구독하는 구독자는 대략 7,300명이 넘습니다. 한편 2019년 5월 8일 기준으로 크리틱-칼을 거쳤거나 여전히 활동 중인 필자는 90명이 넘으며 이들이 크리틱-칼에 게시한 글은 약 360건입니다.

크리틱-칼은 다양한 이들이 삶과 예술, 사회와 예술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되기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내외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크리틱-칼은 그동안 시각예술 분야와 관련하여 논쟁적인 글이 적지 않게 게시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시각예술 분야 웹진으로 인지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크리틱-칼은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고 더 많은 글이 누적될수록 시각예술 비평 웹진이라는 성격이 지금보다 더 도드라지게 될 것입니다.

크리틱-칼을 구상하던 시기에 타산지석으로 삼은 사례는 흠여지는 전술 홈페이지와 제너럴 매거진(General Magazine)입니다. 흠여지는 전술의 동인들은 개인 혹은 팀 단위의 작업을 서울 시내 곳곳에서 전개했는데, 이에 대한 정보가 흠여지는 전술에 과정, 사진, 영상, 소리 같은 항목을 통해서 매개되거나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틱-칼은 웹진에 어떤 항목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각 항목 안의 정보들이 어떻게 SNS에 유통되는가를 흠여지는 전술을 통해서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흠여지는 전술 메인 페이지 한편에 서울문화재단과 개인 후원자의 로고가 위치한 것을 보면서 웹진에 개인후원자 혹은 공공기금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흠여지는 전술의 경우에는 서울문화재단 기금을 받은 해로 추정되는 2011년 활동에 대한 내용 이후로 업데이트된 것이 없는데, 이는 흠여지는 전술의 추진력이 서울문화재단 기금의 소진과 함께 사라졌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제너럴 매거진은 흠여지는 전술과 달리 명확하게 미술비평 웹진을 지향한 곳이기에 크리틱-칼을 기획할 때 구조면에서 참고할 점이 더 많았습니다. 가령 한 달에 한 번 필자 중 한 명이 주제를 던지면 그 주제를 가지고 나머지 필자들이 글을 쓰는 방식이나 SNS를 통해서 글이 전파되는 구조, 고료가 없는 자발적인 미술비평 웹진이라는 지향점, 100일을 채우지 못하고 폐간을 맞이한 상황이 크리틱-칼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참고할 점들이었습니다. 특히 제너럴 매거진이 갑자기 폐간된 상황은 크리틱-칼이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이었습니다. 만약 크리틱-칼이 제너럴 매거진처럼 갑자기 사라지거나 흠여지는 전술처럼 기금의 소진에 맞춰 운영을 멈춰버린다면 그것은 매체와 관계를 맺은 필자, 독자, 후원자의 존재를 간과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틱-칼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웹진의 허무한 증발이나 중지가 발생할 여지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틱-칼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독자들의 자발적인 비정기 소액 후원금 규모에 맞춘 운영을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후원금 규모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1년에 60~70만 원 내외의 비정기 후원금이 모여 이 후원금은 한 번이라도 크리틱-칼에 투고 해주신 필자에게 1년에 한 번 5만 원 안에서 필자가 원하는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러나 비정기 후원만으로는 여러모로 운영상의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2020년 3월부터는 정기후원자 1000명 모집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차후에 1년

---

에 한 번 5만 원 책 선물을 필자에게 드리는 방식은 글을 투고할 때마다 일정 고료를 필자에게 드리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또한 정기후원 규모가 확장되는 것과 비례하여 글을 투고할 때마다 드리는 고료의 규모도 조금씩 상향될 예정입니다. 크리틱-칼의 정기, 비정기 후원에 대한 내용과 후원금 사용 내역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critic-al.org/?page\\_id=2](http://www.critic-al.org/?page_id=2))

한편 크리틱-칼의 생존력을 유지하는 것에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기적인 홈페이지 데이터 백업이고 다른 하나는 메인 홈페이지와 1:1로 포개지는 네이버 미러 블로그(<https://blog.naver.com/redzzongr>)를 함께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서 크리틱-칼은 휘발되기 쉬운 웹진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결코 휘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번 시각예술 비평가-매체 매칭 지원공모에 크리틱-칼이 선정되게 될 경우에는 비평가와의 크리틱-칼의 매칭이 공정히 진행되게 하기 위하여 매칭 결정을 크리틱-칼 외부 인사에게 맡길 예정입니다.

---

## 제공 지면 소개

2015년을 전후로 생긴 시각예술 관련 독립 웹진의 필자들은 대부분 1980~90년대 생으로 꾸러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각 독립 웹진에 올라오는 글의 주제는 1980~90년대 생 작가의 전시 및 프로젝트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크리틱-칼도 초창기에는 다른 독립 웹진과 마찬가지로 필자 층과 글들의 주제가 매우 세대 특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대 특정성은 여전히 크리틱-칼 안에서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크리틱-칼 페이스북 페이지의 통계항목을 통해서 구독자의 연령 분포도를 살펴보면 1980~90년대 생 독자가 전체 독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리틱-칼은 초창기부터 필자의 연령대를 넓히는 것을 계속 추구해왔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필자의 연령대도 소폭 늘어났습니다. 가령 이룸의 '마리관장과 친구들: 국제주의와 트리컨티넨탈리즘 시각에서 본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사건', 한재섭의 '광주비엔날레, 예술의 정치화가 문제인가? 정치의 예술화가 문제인가?', 최범의 '소녀상과 미술 담론-소녀상의 예술학 토론회를 통해 본 한국 진보 미술계의 의식', 김용익의 '#굿-즈 토론', 이영욱&박찬경의 연재물 '읽는 법: 전통 그리고 미술', 신용철의 '그래피티의 마당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놀고 자빠질 것이다.' 처럼 40~60대 필자들도 크리틱-칼에 글을 얼마든지 투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틱-칼은 한때 시각예술과 관련한 논쟁적인 글이 도드라졌던 곳입니다. 물론, 논쟁의 강도는 사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4회 공장미술제, 예술노동, 《열사에서 친구로》(2014), 《뉴스킨》(2015)의 경우처럼 크리틱-칼의 내외에서 논쟁이 몇 차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각예술 표준계약서 및 아티스트 피, 청년관, 신생공간, 《굿-즈》(2015), 강남역 살인사건, 이광석의 『뉴아트 행동주의』, 소녀상, 미술품 유통법 및 미술품 양도소득세, 서울로 <슈즈트리>, 경기창작센터 졸속운영, 촛불집회 등을 다룬 글들의 경우처럼 논쟁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편 논쟁의 연속성 문제를 떠나서 보면 논쟁적인 글은 기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글보다 독자의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2017년 10월 기준으로 '페미니즘의 반(反) 페미니즘-강남역 살인사건을 둘러싼 논쟁에 부쳐' 는 조회수가 1만 6천 회를 넘겼고 '벌레 같은 마음의 한계'는 시각예술 분야에 대한 글임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1만 회를 넘겼습니다. 크리틱-칼에 올라오는 논쟁적인 글에 대한 독자의 주목도가 특히 높은 것은 그러한 글들이 예술계 밖과 맞물리는 면적이 더 넓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크리틱-칼이 논쟁적인 글만을 특히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크리틱-칼은 궁극적으로 삶과 예술, 사회와 예술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을 나누는 장을 지향하고 있으며 논쟁적인 글은 그러한 지향점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